도고온천 주변

도고온천의 역사

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최고의 도고온천은 고대, 이요의 온천, 니키타쓰의 온천 이라고 전해져 왔습니다. 그것이 도고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은 645년의 일입니다. 흥미 깊게 내려오는 이야기로는, 다리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한마리 백조가 바위 틈에서 분출되는 온천을 발견하여, 다리를 담그자 상처가 완전히 나아서 힘있게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걸 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목욕을 하자 상쾌하고 피로가 회복되며, 병자도 어느샌가 쾌유됐다는 이야기에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.

신로각

중요 문화재

⑭ 도고온천 본관

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5분, 마쓰야마IC에서 약8.5Km

고풍에 풍격있는 목조 삼층누각의 공중목욕탕으로, 넓은 가미노유, 조금 아담한 다마노유의 2종류 · 다섯개의 욕실이 있습니다. 또한 최상층 "신로각"에는 남기고싶은 [일본의 풍경 100선]에 선정된 도키다이코 장구가 달려있어 오전6:00 · 정오 · 오후6:00에 북을 칩니다.

【유신덴】

메이지32년에 세워진 황족전용의 목욕탕으로, 현관방, 거실 옆방, 옥좌방으로 되어있어, 그옆에는 경호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무사은닉처(방)가 있습니다. 입욕할 수는 없지만 관람(유료)할 때, 담당직원이 설명합니다.

⑮ 마쓰야마시립 시키 기념박물관

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4분, 마쓰야마IC에서 약8Km

근대 하이쿠의 선조라고 전해지는 마사오카 시키를 중심으로, 나쓰메 소세키나 마쓰야마시가 배출한 문인들의 업적을 집대성한 문학계의 박물관입니다.

⑯ 도고공원(유즈키성뒤)

시내전철[도고공원 앞] 근처, 마쓰야마IC에서 약8Km

메이지19년에 공원으로서 정비한 이래, 벚꽃의 명소,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. 유즈키성뒤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무사저택등을 복원, 출토유물등도 공개 되어 산책하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원입니다.

⑰ 도고호조엔 (아시유)

도고온천 본관에서 사용되는 원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걸어서 피곤한 발을 따뜻한 온천에 담그어 피로를 풀어봅시다.

⑱ 봇짱 장난감 인형 시계

경쾌한 멜로디를 타고 [봇짱]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.

㉟ 이시테지 절 (제51번 후다쇼)

JR마쓰야마역에서 버스로 약20분, 마쓰야마IC에서 약9Km

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니오몬 문은 전국굴지의 누각문으로, 기와를 이은 복층지붕, 안에 안치되어 있는 곤고리키시 상은 운케 파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
⑲ 세키 미술관

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5분, 마쓰야마IC에서 약9Km

구로다 세이키, 고이소 료헤 등 근 · 현대작가의 서양화와 일본화, 로댕의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

⑳ 유 신사

시내전철 [도고온천역]에서 도보 약5분

유 신사는, 도고온천의 수호신으로 오쿠니노미코토와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가 모셔져 있습니다.

㉑ 이사니와 신사

이요철도 도고온천역에서 도보 약15분, 마쓰야마IC에서 약8.5Km

마쓰야마한, 마쓰타이라3대 한의 주인인 사다나가가 에도성에서 행해진 야부사메의 대원성취의 보답으로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. 본전은 우사 · 이와시미즈료하치만과 함께 일본에 3개밖에 없는 하치만조로서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㉒ 도고상점가 (도고 하이카라 도리)

여행의 에티켓

●숙박시설에 대하여… 여관에서는 유카타 · 조리차림으로 복도를 걷거나 목욕탕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습니다. 호텔에서는 방을 나오면 유카타나 슬리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지만, 온천시설 등이 있는 호텔에서는 무관하므로 숙박시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.

●입욕에 대하여… 탈의실 바구니나 라커는 1인 한개가 상식입니다. 1인이 여러개를 사용하지않도록. 대욕탕에서는 머리카락이 탕안에 닿지 않도록 긴머리는 고무 등을 사용하여 머리를 묶어 주십시오. 또한 탕안에 들어가기전에 반듯이 물을 끼얹고, 깨끗하게 한 다음 들어갑시다. 목욕타올로 감거나 수영복을 입은 채로 탕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. 타올은 탕안에 담그면 비위생적이오니 하지 맙시다. 탈의실에는 몸의 물기를 잘 닦은다음 돌아옵시다.

●팁에 대하여… 일본에서는 현재 서비스료 형태로 되어 있어 숙박대금안에 포함돼 있습니다. 그러므로 객실담당이나 나카이상에게 반듯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.